

## 감정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정보로서의 감정' 모형과 판단수정 모형\*

안신호 · 빈성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판단에 미치는 감정의 효과가 '정서의 정보적 기능' 즉 당시의 감정을 판단의 결과 초래된 것으로 오귀인하기 때문이라는 Schwarz의 모델(Schwarz & Strack, 1991)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2개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1에서는 참가자를 쾌적한 방이나 불쾌한 방에 있게 하여 약한 쾌/불쾌 정서를 경험하게 한 후 행복, 삶의 만족, 및 주거와 용돈에 대한 만족 정도를 답하게 하였다. 당시의 감정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정적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정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감정의 원인을 인식시킨 경우, 사람들은 감정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감정의 영향을 받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지시받은 참가자들에서는 감정효과를 수정하려 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되는 반응, 즉 감정효과에 대하여 역방향의 반응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문제(주거 및 용돈에 대한 만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결과 양상은 비슷하였다. 실험 2에서는 참가자들이 선물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무시됨으로써 비교적 강한 쾌/불쾌 정서를 경험한 상황에서 판단과제가 실시되었다. 감정의 원인을 강하게 인식시킨 조건과 약하게 인식시킨 조건 모두 판단에 있어 감정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사람보다(특히 주거나 용돈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더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강한 감정상태에서도 감정효과를 수정하려는 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LeDoux의 최근 이론에 기초하여, 감정상태에서는 대상을 특정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정서적 마음갖춤새'가 형성되어 감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감정효과와 수정현상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감정이 인간의 행동이나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는 감정이 응중(compliance)과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집중적으로 취급되었다. 어떤 종류의 부정 감정상태(예컨대, 자신에게 닥친 사건으로 유발된 슬픔)에서는 도움행동이 감소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부정 감정상태(예컨대, 타인들의 딱한 처지를 목격한 데서 유발된 슬픔, 혹은 죄책감), 그리고 정적 감정상태에서는 도움행동(혹은 응중)이 증가하였다(개관: 안신호, 1983, 1986; Bierhoff, 1988; Clark & Isen, 1982; Rosenhan, Salovey, Karylowski,

\* 이 논문의 두 실험은 1993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1996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에 발표된 바 있다. 실험 2의 절차에서 "책의 해를 맞아 -"는 1993년이 '책의 해'이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그 이후에 입수된 많은 관련 연구들에 기초하여 새롭게 집필한 것이다.

& Hargis, 1981; Staub, 1978).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근거에는 그 감정에 의해 야기된 모종의 인지(판단 경향성)가 매개과정으로서 존재하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전제하에 감정 - 도움행동 관계 연구에서 출발하여 감정 - 인지 관계 연구에 자신의 연구 주제를 한정하여 온 Isen(1984, 1999; Isen, Shalke, Clark, & Karp, 1978)을 위시하여, 특히 Zajonc(1980)와 Bower(1981) 이후, 감정 - 인지 관계는 세계 여러 나라 사회심리학자 및 인지심리학자들의 주목받는 연구주제가 되었다(김기중, 1993 및 이홍철, 1993 참조; Ellis & Ashbrook, 1988; Fiedler, 1990; Fiedler & Forgas, 1988; Forgas, 1991a; Niedenthal & Kitayama, 1994; Schwarz & Clore, 1996). 이 주제의 심리학사적 의의는 자못 크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고 인간을 이해하여 보고자 하였던 인지심리학, 그리고 감정을 흥분과 인지의 부산물로 취급한 Schachter의 귀인이론적 정서이론 혹은 Arnold(1960)나 Lazarus(1974)의 이른바 정서의 평가이론(appraisal theory of emotion) 등, 달리 말해서 감정을 심리적 변인에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종속변인으로 취급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감정을 독립변인으로 취급하는 연구 경향이 대두한 것이다(안신호, 1996; 조은경, 1994).

Isen 등(1978)은 간단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나 텔레비전의 성능을 보다 정적으로 판단함을 밝힘으로써 감정 - 판단 관계 영역의 문을 열었다(비슷한 함의를 가진, 보다 이전 연구에 관한 개관은 Forgas, 1991b 참조). Isen 등(1978)은 이 현상을 인지적 고리 이론(cognitive loop theory)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기본 좋음(feeling good)'이 도움행동을 증가시키는 이전 결과(예컨대, Isen & Levin, 1972; 개관: 안신호, 1983, 1986; Bierhoff, 1988)의 이론적 근거를 포함하는 이 이론은 기분이 좋을 때는 기억 중 정적(正的)인 것들이 주로 인출될 것이라는 가설로 요약된다. 그 후 Bower(1981; Bower & Cohen, 1982; Gilligan & Bower, 1984)는, 이 인지적 고리 이론의 핵심을 포괄하여, 주로 감정 - 기억을 중심으로 한 그의 이른바 연합망 이론(associative network theory)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정적 감정과 관련된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하게 되므로 매사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기분이 나쁜 사람은 부적인 기억을 선택적으로 많이 회상하게 되므로 비호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Blaney, 1986; Clark & Isen, 1982; Isen, 1984; Fiedler, 1990; Hasher, Rose, Zacks, Sanft, & Doren, 1985; Laird, Wagener, Halal, & Szegda, 1982).

그러나 이 이론은 Johnson과 Tversky(1983) 그리고 Schwartz와 Clore(1983)의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연합망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비감정적 인지적 단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지적 단위로 간주되므로, 비감정적 인지적 영향과 감정적 영향은 가산적이어야 한다. 즉 병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슬픔에 빠진 사람은 슬픈 기억이 더 많이 날 것인데(감정 효과), 그 중에서도 병과 관련된(비감정적 영향) 슬픈 일이 다른 슬픈 일, 예컨대, 가난이나 실연과 관련된 슬픈 일보다 더 많이 기억나야 옳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Johnson과 Tversky(1983)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우선 죽음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 열여덟 가지에 대한 유사성 평정자료의 군집분석에 기초하여, 이들이 자연재해(홍수, 화재 등), 교통사고 및 살인사건, 기술적 재앙(핵사고, 약물), 질병으로 대별되고, 이 군집은 자기 소군집으로(예컨대, 포함된 다섯 가지 질병은 혈관질환 두 가지와 암 세 가지로) 나뉘는 확인하였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그들은 한 젊은이의 죽음(자기, 백혈병, 화재, 살해가 원인)을 내용으로 한 지역신문의 기사를 실험참가자들에게 읽힌 후 "미국에서 일년에 약 5만 명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 다음 원인으로서는 일년에 미국인 중 몇 명이 사망할 것 같은지"를 답하게 하였다. 연합망 이론에 따르면, 예컨대 백혈병 이야기 조건은, 다른 이야기를 읽은 조건에서 추정하는 수에 비하여 백혈병에 관하여 가장 높은 비율, 다른 질병들의 평균치 지표에 있어서는 약간 높은 비율, 그리고 그 밖의 원인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일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결과는 세 이야기 조건간에 각 비율상의 차이가 없었으며, 세 조건 모두 통제조건에 비하여 모든 사망원인에 전부 더 높은 수를 추정한다는 것이

었다(실험 1, 2). 이는 연합망 이론이 제안하는 인지적 단위에 따른 연합의 효과를 얻는 데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세 이야기 모두 “죽음”과 관련된 것이어서 나타난 결과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험 3에서는 죽음과 무관한 내용의 기사를 읽는 부적 감정 유발조건(한 젊은이의 불운한 이야기: 실연, 직장문제, 가정문제)을 포함시켰다. 이 죽음 무관 부적 감정 유발 조건의 결과는 죽음관련 부적 감정 유발조건의 결과와 같았다. 정적 감정 유발조건(한 젊은이의 행복한 이야기: 의대 합격, 어려운 시험 통과)에서는 결과가 반대이었다(실험 4). 감정효과는 판단할 내용이 감정 유발에 사용된 이야기의 소재(인지적 연합 단위)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히, 유발된 감정의 방향(valence)에 따라 모든 주제에 고루 퍼져 나가는 것이라는 이 결과는 ‘데이트’와 ‘여행’을 주제로 한 Clore, Schwarz, 및 Kirsch(1983)의 연구에서도 되풀이되었다(Schwarz, 1990 참조). 이 실험들의 결과는 이른바 감정 효과가 감정이 인지적 연합망 속의 한 요소로 기능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서를 인지의 이론들 안에 포함시켜 생각해 보려는 Bower의 이론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으로서 정서 과정이 인지과정과 독립적이라는 Zajonc(1980; 1984)의 주장을 생각하여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주장은 매력적이기는 하나, 구성성 면에서 아직 너무 막연하다. 연합망 이론에 대한 또 하나의 반대 증거는 “우리는 분명히 어떤 감정상태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감정효과를 안 보이거나, 더 나아가 감정효과를 수정하려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상이다.

우리의 행동과 판단이 감정상태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어서, 어린 아동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나(첫 저자)의 딸은 어릴 때부터 뭔가 할 얘기가 있어 나에게 왔다가 나의 표정이 굳어 있으면, “아빠 화났어?” 하고 묻고는 내가 “그래”라고 대답하면, 나의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가 놀면서 한동안 나의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만약 내가 그때 나의 아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다면, 나의 딸은 자신의 오빠가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된 것으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아빠가 순간적 감정

상태 때문에 모종의 편파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판단이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어떤 다른 사람이 감정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한 경우, 그 판단이 썩 정확한 판단이 아닐 것이라고 추론하고 나아가서 그 판단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여야 정확한 판단에 가까운 것이 될지를 추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인간은 비이성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이 비이성적인 것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판단이 감정에 좌우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감정상태에서 모종의 판단을 하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현재의 판단이 결코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즉 자신의 판단을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믿으며,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판단이 그 당시의 감정에 좌우되었음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가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우리는 그 물건이 쓸모 없다는, 확신에 찬, 판단을 하고는, 나중에 차분히 생각할 기회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화난 당시의 판단이 그 물건의 부적 측면만을 주로 고려한 판단이었음을 인식하고 판단을 바꾸는 것이다. 화난 당시에 자신이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여 판단에 수정을 가하는 일은,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도 그 판단이 감정에 영향을 받았을 것인지를 헤아려, 나중에 아닌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종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우리는 (나중이라면 몰라도) 판단하는 순간에는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여기고 정당화하는가? 전자가 옳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Schwarz와 Clore(1983)는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설명은 다시 귀인이론적 정서이론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출발하므로 Schwarz와 Clore(1983)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 논문의 한 실험(실험 2)에서 연구자들은 먼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를 가장하

여 실험대상자에 접근하였다. “당신의 전반적 삶에 관하여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니까?”와 “요즘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라는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종속변인이었으며, 감정(비오는 날과 개인 날)과 종속변인 질문 전의 서로 다른 언급 세 가지가 각기 독립변인인 2×3 요인설계이었다. 종속변인 질문 전 언급의 세 조건 중 하나는 (세 조건 공통인 인사와 소속 밝힘이 있는 후) “그런데, 거기 날씨는 어떻습니까? (응답자의 반응 후) 자, 우리 연구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기분에 관한 것입니다” (간접 점화), 다른 한 조건은 날씨에 관한 대화에 이어서 “우리는 날씨가 사람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직접 점화), 그리고 남은 한 조건은 날씨에 대한 질문조차 없는 무점화 조건이었다. 무점화 조건에서는 비오는 날의 행복감과 만족감(각기 10이 최고치인 11점 척도: 두 측정치의 결과가 거의 완전히 일치하므로 평균을 냄)은 4.93, 개인 날은 7.00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간접 및 직접 점화 조건의 경우에는 무점화 개인 날 조건과 차이가 없었다(비오는 날 6.86, 7.00; 개인 날 7.04, 7.50).

이는 부정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 감정의 원인을 인식시킨 후 어떤 판단을 하게 하는 경우, 감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그들의 이른바 “정보로서의 감정”(affect as information)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이론의 요체는 (1)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 당시의 감정을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시의 감정이 정적이면 문제의 대상에 대하여 정적 평가를, 그리고 당시의 감정이 부정적이면 부정 평가를 한다는 것, (2)그런데, 이 현상은 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모를 경우에만 나타나며, 자신의 감정이 평가 대상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된 것임을 자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즉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상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실험의 무점화 조건에서는 주룩주룩 내리는 비 혹은 쾌청함이 야기한 감정을 응답자들은 각기 자신의 삶의 행복과 만족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인 것으로 착

각하였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Schachter의 정서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Schachter & Singer, 1962). 즉 우리는 우리의 내적 상태(감정)에 민감하지 못하여, 주위의 상황이 어떤 감정을 야기하는 속성을 갖는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이 실험의 무점화 조건은, 그래서, 날씨에 의하여 야기된 감정을 삶의 행복, 만족에 관한 판단의 결과로 오귀인하였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뒤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는 일단 이 연구가 “감정의 원인을 인식하게 되면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현상에 관하여, 절반의 증거만을, 즉 부정 감정 상태에서의 증거만을 얻은 것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 실험의 큰 장점은 아마도 실험참가자가 자신의 기분이 왜 좋은지, 혹은 나쁜지 인식하지 못 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일 것이다. 실 내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을 이 실험의 응답자들은 자

- 1) 왜 비오는 날, 즉 부정 감정상태에서만 점화, 무점화 조건간에 차이가 있고 맑은 날에는 차이가 없는가에 대한 Schwarz와 Clore(1983)의 설명도 마찬가지로 귀인이론에 따른다. 부정 감정상태에서는 사고가 보다 분석적이 된다는 그들의 입장은 “정적 감정상태에서는 대충 처리하기(heuristic), 부정 감정시에는 체계적(systematic) 처리”라는 감정-인지 관계 연구의 일반적 결론(Fiedler, 1988; Forgas, 1991b; Isen, 1984)과 일치한다. 그런데, 왜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되는가에 관한 Schwarz와 Clore (1983)의 설명은, 부정 상태는 일반적으로 위협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보통의 동기적 추론(Fiedler, 1988; Forgas, 1991b; Isen, 1984)과는 달리 귀인이론적이다. 그들의 설명은 자신의 성공은 내적 원인, 실패는 외적 원인에 귀인을 하는 현상이 자존감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동기적 설명에 반대하는 귀인이론적 설명(예컨대, Miller와 Ross, 1975), 즉 ‘실패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외적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설명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즉 부정 감정은 흔한 경험이 아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Schwarz를 위시한 연구진들(Bless, Bohner, Schwarz, & Strack, 1990)은 귀인적 설명과 동기적 설명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시도하였다. 즉, 성공, 실패 정보와 아울러 그 성공 혹은 실패가 일어날 확률을 높게 혹은 낮게 알려 주고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성공, 실패 확률의 높고 낮음에 무관히, 모든 실패상황에서 그 원인에 관한 사고가 많다는 것이었다. Schwarz와 Clore를 위시한 이 연구진은 결국 이 문제에 관한 귀인이론에서 물러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Schwarz & Bless, 1991; Schwarz & Clore, 1996).

신의 감정의 원인이 날씨 때문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보통의 감정유발 방법, 즉, Velten 기법이든, 개인의 과거사 회상이든, 아니면 성공 실패 피드백이든, 실험실에서 감정을 유도할 때 실험참가자가 그 감정의 원인이 방금 전의 감정 유도 절차 때문임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서 Schwarz와 Clore(1983)의 점화 조건이 응답자들에게 무엇을 일러준 것인지를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점화 조건이 응답자들에게 그들의 감정의 원인이 날씨임을 일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거기 날씨는 어떻습니까? ...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기분에 관한 것입니다” (간접 점화), “우리는 날씨가 사람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직접 점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행복과 삶의 만족에 관한 판단과제를 받은 응답자들에게 제공된 것에는 당시의 기분이 날씨 때문임을 인식시킨 것 이외에 “우리는 기분이 행복, 만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없기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응답자들은 있을지 모르는 판단 오류, 즉 감정의 영향을 가급적 피하려 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Schwarz와 Clore(1983)의 점화 조건은 감정의 원인만을 일깨워 준 것이 아니라 감정이 판단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암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형적인 감정유도 절차로 실험실에서 실험참가자들의 감정이 유발되었던 (따라서 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분명히 인식했을) 많은 이전 연구에서 발견된 ‘감정이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이 그 후의 과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감정의 영향은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Berkowitz, Jo, Troccoli, 및 Monteith (1994), 그리고, Berkowitz와 Troccoli(1990)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두 연구의 여러 실험에서는 Velten 기법,

한쪽 팔 들고 있기, 찬/더운 물에 손 담그고 있기 등, 실험참가자들이 그들의 감정의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감정이 유도되었다. 이 실험들에서는 이어서 당시의 감정을 보고(평정)하거나(감정에 주의를 기울인 조건) 무관과제를 하도록 한(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조건) 후 한 여성에 관한 인상평정(종속변인)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두 감정조건 간에는 전형적인 감정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 즉 강한 부정 감정의 참가자들보다 덜 부정적으로 문제의 여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판단 조정(regulation)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감정이 이 상황에서 판단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있을 수 있는 편파 영향을 과수정(overcorrection)하려는 것 같다”는 설명인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실험들(Berkowitz 등, 1994, 실험 1, 2)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 조건’의 절차로서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그 실험이 감정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임을 알려 주고 감정형용사에 평정을 시킨 점이다. 이 실험의 ‘감정 주의 조건’ 참가자들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 것 이외에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도 받은 셈이다.<sup>2)</sup>

이 실험에서 종속변인 측정 전에 무관과제를 실시 받은 조건은 만약 그 조건의 참가자들이 종속변인 측정 중의 감정이 실험의 감정유발 절차에 기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Schwarz와 Clore(1983)에서의 ‘감정의 이유를 모르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관과제 실시 조건의 참가자들은 종속변인 측정시의 감정이 감정유발 조작 때문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sup>3)</sup>, 단지 중

2) Berkowitz 등(1994)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경고”의 효과가 배제된 실험을 시도하였으나(Berkowitz 등, 1994, 실험 3), 감정유발이 성공적이지 않아서 (조작확인 결과 유의하지 않음) 종속변인의 결과를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

3) Berkowitz 등(1994)은 이 점도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속변인의 측정이 감정에 영향을 받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보다 클 것 같다. 그러므로 판단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였을 것이다.<sup>4)</sup>

감정효과에 대한 이 과수정 현상은, 이와 상당히 유사한,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감정'에 관한 연구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연구들, 즉 '정/부적 맥락 자극의 점화가 후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으로 요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연구들에서도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맥락효과는 맥락자극과 목표자극과의 관계에 따라 동화의 방향으로도, 그리고 대비의 방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맥락효과는 맥락과제와 목표자극 관련 과제가 하나의 과제로 인식될 때 나타난다. 그러나 맥락과제와 목표자극 과제가 별개의 것임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응답자들은 맥락의 영향이 목표자극 판단에 편파를 야기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맥락의 영향의 반대 방향(맥락의 자연스러운 영향이 동화인 경우에는 대비의 방향, 맥락의 자연스러운 영향이 대비인 경우에는 동화의 방향)으로 반응하는 과수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Martin, 1986; Martin & Arce, 1992; Petty & Wegener, 1993; 개관: 권준모·이훈구·이수정, 1998; 이수정·권준모·이훈구, 1998; Bargh, 1996; Wegner & Bargh, 1998; Wegener & Petty, 1997).

전형적인 실험의 한 예로서, Petty와 Wegener(1993)는 "오는 가을 두 주간 휴가가 있을 것으로 상상하라. 그 두 주를 다음 장소에서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는지 평정하라" 라는 판단과제를 주었다(실험 2). 정적인 맥락자극으로는 하와이, 파리, 바하마, 샌프란시스코, 및 자마이카, 중성적 맥락자극으로는 미니애폴리스,

휴스턴,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및 아틀란타가 주어졌으며, 목표자극은 미국 중서부 대학 도시(인디애나폴리스, 캔사스시티)이었다. 목표자극 제시 전에 별도의 지시문이 없는 경우, 맥락효과(이 경우에는 대비효과)가 나타났다. 즉 미니애폴리스 등에 이어서 판단할 때보다 하와이 등에 이어서 판단할 때 목표자극인 인디애나폴리스나 캔사스시티를 덜 매력적인 휴가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목표자극을 제시받기 전에 "다음 장소의 평정이 당신이 방금 평정한 장소에 관한 판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는 지시문을 읽은 집단은 역의 결과, 즉 하와이 등이 맥락이었던 조건이 미니애폴리스 등이 맥락이었던 조건보다 오히려 더 목표자극에 대하여 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감정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맥락효과 중 동화효과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른바 사회인지의 전형적 연구 전통, 즉 사회적 판단의 기제를 인지심리학적 개념들, 즉 자동화, 인지적 처리 용량 등과 관련하여 이론화한다.

맥락효과는 맥락이 평가차원의 방향(valence) 면에서 중성적인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맥락의 영향을 수정하려 하는 현상은 (적절한 지시문을 제공한다) 그러한 중성적 맥락에 대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키 큰 나무 옆에서 있는 작은 나무의 키를 판단할 때 대비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만약 옆의 키 큰 나무의 영향을 받지 말도록 주의한다면 과수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Petty와 Wegener(1993) 실험에서처럼, 맥락이 평가차원상의 정적 혹은 부적 방향을 띤 자극인 경우, 그 맥락효과와 그 효과의 과수정 현상은 감정의 효과 및 그 효과의 과수정 현상과 아주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맥락자극은 명확히 개념화된 구체적 자극물로서 제시되기 때문에 그 맥락의 속성에 관한 인식이 매우 용이하며, 그 맥락이 목표자극의 판단에 미칠 효과도 추정하기가 쉽다. 또한 맥락에 영향을 받음을 인정함이 판단자로서 비이성적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효과를 수정하는 데 별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맥락이 역하로 제시되는 경우에 오히려

보다 간접적이고 눈치채기 어려운 감정유발방법으로서, 펜을 이 들어내고 물고 있기(미소), 종이를 입 오른 쪽에 이를 악물고 잡고 있기(짙그림)로 감정유발을 시도 하였으나(실험 3), 앞 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 유발에서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 절차는 참가자들에게 괴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실험자가 아주 자상한 태도로 참가자를 대하지 않으면 원하는 감정의 유발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4) Berkowitz 등(1994), 그리고, Berkowitz와 Troccoli(1990)의 해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려 맥락효과가 강력하고, 맥락이 인식되는 경우에는 판단 수정의 가능성이 높음을 밝힌 많은 연구들(개관: Bargh, 1996; Carlson & Smith, 1996; Higgins, 1996; Wegner & Bargh, 1998)은 이를 잘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실험절차를 통하여 유발된 즉 '체험된 감정'의 경우, 그것의 효과는 쉽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자신이 감정에 좌우되는 비이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감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판단이 실제로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 판단이 목표자극 속성에 근거한, 편파없는, 판단인 것으로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chwarz와 Strack(1991)의 판단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chwarz는 '정보로서의 감정(affect as information)' 이론으로써 판단에 미치는 감정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전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처럼, 고려할 조건과 경험들이 너무 많은 애매한 판단과제를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관한 내 기분이 어떻게? 책략(How do I feel about it? heuristic)"을 사용하여 손쉽게 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Clore, Schwarz, & Conway, 1994; Schwarz, 1990; Schwarz & Clore, 1988; Schwarz, Strack, Kommer, & Wagner, 1987).

Schwarz(1990)에 따르면, 그러나 이런 책략은 현재 감정의 원인을 인식시켜 주면 쓰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신에, 판단할 주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기억에서 인출하여 이를 비교, 분석한 후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거공간이나 용돈에 대한 만족판단처럼 판단의 대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구체적일 때는 감정을 정보로 사용해서 답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사람들은 실제 판단과 관련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인출해서 답할 것이며, 따라서 감정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chwarz & Scheuring, 1988; Strack, Schwarz, & Gschneidinger, 1985). 감정이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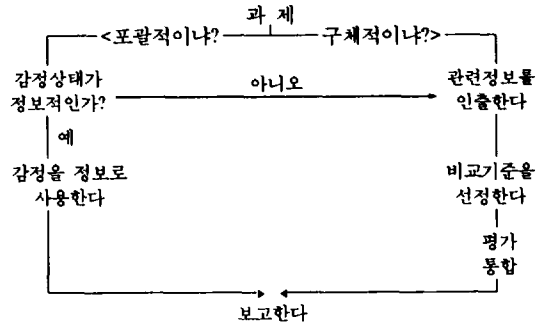


그림 1. Schwarz와 Strack(1991)의 판단모형 (p.43)

주는가에 관한 Schwarz의 모형(Schwarz & Strack, 1991)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Schwarz의 모형에서 감정의 효과는, "그쪽의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와 같은 언급으로 감정의 정보를 의심스럽게 만들면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그러나, 맥락-목표자극 관계가 아닌 감정-판단 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판단수정 현상이 밝혀진 것은 부정 감정에 한하며, 그것도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Schwarz의 주장과는 달리, 감정의 원인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판단 영향관계의 경고도 함께 암시된 경우에 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보로서의 감정" 이론이 정말 타당한지, 즉 감정의 원인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감정-판단 영향이 사라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정적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판단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Schwarz는 주장하지만, TV세트에 대한 평가가 직전에 우연히 받은 작은 선물이 가져온 좋은 감정으로 인해 호의적으로 내려진다는 Isen 등(1978)의 실험을 위시하여, 구체적 판단과제에서도 감정이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는 무수히 많은 실험(개관: Forgas, 1991b; Isen, 1984)과의 상충점도 해결을 요하는 문제이다(Bower, 1991; Forgas, 1991b).

따라서, Schwarz와 Clore(1983)의 실험 2는 재검증이 필요하다. 그 실험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감정유발의 방법이 아주 미묘하여 실험참가자가 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눈치채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데 있었다. 그런데, Schwarz와 Clore(1983)의 '날씨' 방법은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나 가능하다.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이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방의 분위기'를 택하기로 하였다. 방의 분위기는 실험절차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어서 실험참가자는 방 분위기에 의하여 유도된 감정의 원인을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방법은 Schwarz 등(1987)에서 사용하였었는데, 연구자들은 그 실험에서 감정의 원인을 일깨워주지 않는 조건만을 취급하여, 감정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또한 감정의 원인만을 자각하게 하는 조건과 감정의 원인뿐만 아니라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조건을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실험의 '(감정원인) 인식조건'과 '경고조건'은 Schwarz와 Clore(1983)의 이른바 점화조건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Schwarz와 Clore(1983)는 (직접/간접) 두 점화조건을 본 연구의 '인식조건'과 같은 것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경고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강한 감정 상태에서는 감정의 원인 인식만으로는 (더 나아가서 감정의 영향에 관한 인식이 있다 하여도)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후 우리는 왜 울화통이 터지는지 뻔히 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어리석게도, 그 감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 2는 강한 감정상태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 실 험 1

실험 1에서는 방의 환경에 의해 유발된 감정이 (1) 자신의 전체 삶에 대한 만족정도의 평가와, (2) 자신의 방이나 용돈에 대한 만족과 같은 구체적인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험실의 분위기에 의하여 유발된 감정은, 특별한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어서, 실험참가자들이 감정의 원인을 눈치채기 어려울 것이다. 판단에 미치는 감정의 효과가 감정정보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Schwarz의 판단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감정의 정보가를 의심스럽게 만

드는, 즉 실험실의 분위기가 정적 (혹은 부정) 감정의 원인임을 일깨워주는 원인인식조건, 그리고 감정의 효과가 사라지는 이유가 감정의 효과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 때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감정의 영향을 받지 말고 냉철히 판단과제에 임하라고 지시하는 경고조건을 설정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2(정적 감정, 부정 감정)×3(무인식조건, 원인인식조건, 경고조건) 요인설계가 사용되었다.

Schwarz의 이론이 옳다면, 무인식조건에서는 감정효과가 나타나고, 인식조건과 경고조건에서는 감정효과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감정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감정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라면 무인식조건뿐만 아니라 인식조건에서도 감정효과가 나타나고, 경고조건에서는 감정효과가 사라지거나 더 나아가서 과수정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무인식조건에서는 감정효과, 경고조건에서는 과수정현상이 예상되고, 이 두 조건의 연속선상의 중간에 인식조건이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면, 인식조건에서는 두 효과/현상의 중간, 즉 정적, 부정 감정 조건간에 차이가 없는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식조건의 경우, 자신이 감정상태임을 알게 되어, 경고조건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감정의 영향에서 벗어나려 노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실험에서는 종속변인으로서 구체적인 주제의 판단과제(주거 및 용돈 만족)도 포함시켰다. 방 분위기가 감정유발 방법이었던 선행연구(Schwarz 등, 1987)에서는 현재 있는 방이 자신의 주거를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 역할을 하여 대비효과(정적 감정 조건이 부정 감정 조건보다 자신의 방 혹은 아파트에 더 불만족함)의 경향성이 있었다.<sup>5)</sup>

## 방 법

참가자 부산대학교에서 '청년심리와 적응'과목을 수강하는 여학생 90명이 가산점을 받는 조건으로 실

5) 이 대비효과는 외형적으로는 과수정현상과 같으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Ottati & Isbell, 1996). 즉 대비효과는 자연스러운 맥락효과의 일종이다.



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감정단어 유사성 평정'과 '생활 일반에 관한 설문지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에 참가한다고 생각하였다. 참가자들은 여섯 조건에 각각 15명씩 무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실험실**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각각 유도하도록 두개의 실험실을 꾸몄다. 정적 감정을 유도하는 실험실은 좋은 전망의 넓은 창, 편안한 의자와 탁자, 꽃, 음악 등을 사용하여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연출하였다. 부정 감정을 유도하는 실험실은 쓰레기, 백색 소음, 악취, 흐릿한 조명을 사용하여 불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절차 실험자 1은 참가자를 맞아 준비된 실험실로 안내한다. 준비된 의자에 앉은 참가자는 실험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듣게 된다.

"참가자는 크게 두 가지 조사에 참가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감정단어 유사성 평정지'를 하고, 그 후에 다른 조사자가 주관하는 '대학생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정단어 유사성 평정은 한국인의 감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감정단어를 선별하여 얻어진 대표적인 11개의 감정단어가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11점 척도 상에 평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안신호·이승혜·권오식(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감정단어들 중에서 11개를 선택하여 만든 것이었다. 약 7분 정도가 지난 후 참가자가 응답을 마쳤으면, 다음 실험자가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실험자 1은 퇴장한다. 참가자는 실험실에서 과제 없이 혼자 기다리면서 실험실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된다. 10분 후 실험자 2가 들어와 '대학생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한다. 두 과제가 무관한 것임을 암시하기 위하여 두 실험자(모두 여성)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참가자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된다.

무인식조건에서는 실험자 2가 인사와 함께 바로 설문지를 실시하고, 인식조건에서는 "이방에 있으니 기분이 좋아지지요?" 혹은 "실험실이 지저분해서 기분이 나빠지죠?" 라고 말한 뒤 참가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후 설문지를 실시한다. 경고조건에서는

인식조건에서와 같은 질문, 응답에 이어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현재의 기분이나 일시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지 말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실험자 2는 「대학생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하고 답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15점 척도 상에서 자신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정도를 물어서 두 질문에 대한 답의 평균을 전반적인 행복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어서 자신의 용돈에 대한 만족 정도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방에 대한 만족 정도를 역시 15점 척도로 묻는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통학시간과 통학수단, 용돈을 어떻게 받는 지 등을 물었다. 이 마지막 문항들은 설문지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넣은 것으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설문지가 끝나면 실험자 2는 「추후질문지」를 배부한다. 행복과 삶의 만족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보기가 마련된 질문들을 준비하였다. "그냥 막연하게" 답하였는지 아니면,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고" 답을 정하였는지 택하게 한 다음, "몇 가지 일을 생각"하였다면 어떤 일을 생각하였는지를 적게 하였다. 「추후질문지」가 끝나면 '사후면접'을 실시한다. 사후면접은 판단과정 동안의 참가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참가자들이 설문지에 답할 때 감정의 영향을 받았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는지,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실험실에서 실험자 2를 기다리며 실험실에 혼자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등을 알아 보기 위해 실험자 2가 구두로 질문하고 답을 받아 적었다. 사후면접을 끝마치고 나서 실험에 대한 사후설명을 하였다.

## 결과 및 논의

**실험조작효과 확인** 본 실험과는 별도의 집단(정적, 부정 조건 각 11명씩)에게 각 실험실이 유도한 감정 조작의 유효성을 체크하였다. 모든 절차는 본 실험의 무인식조건과 동일하였으며, 「대학생의 전반적인 생

활에 대한 설문지」의 첫 문항으로 “현재 이방에서의 당신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추가한 것만이 달랐다. 15점 척도(1점, 매우 기분 나쁘다에서 15점, 매우 기분 좋다 까지) 상에서 자신의 현재 감정을 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정적 및 부정 감정유발조건의 평균은 각각 11.3(표준편차 2.1)과 6.5(표준편차 2.8)로 두 조건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0)=4.44, p<.001$ ).

본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별도의 공식적 감정조작 확인을 하지 않았고, 사후면접에서 ‘실험실에서의 감정상태’를 물었다. 쾌적한 실험실에 있었던 참가자들의 69%는 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고(9%가 중성적인 감정, 22%는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 불편한 실험실에 있었던 참가자들의 53%가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다(18%가 정적 감정, 29%가 중성적 감정을 보고). 보고된 감정에 따른 빈도분석의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chi^2(2)=24.09, p<.001$ ).

전반적인 행복 주 종속변인이었던 전체 삶에 대한 만족평정치와 행복평정치를 평균하여 전반적인 행복(general well-being) 지표로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행복지표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행복지표를 변량분석한 결과, 감정조작(정적 감정, 부정 감정)의 주효과 및 인식조작(인식, 무인식, 및 경고조건)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모두  $F<1$ ),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84)=3.86, p<.025$ ). 이 상호작용효과는 주로 경고조건의 결과 양상이 무인식조건과 다른 데 기인한 것이었다. 무인식조건과 경고조건의 두 조건간의 자료를 변량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F(1, 56)=7.71, p<.007$ 로 유의하였다. 무인식조건과 인식조건 자료의 변량분석 결과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도 경향성을 보였다( $F(1, 56)=3.84, p<.06$ ).

무인식조건에서는 정적 감정을 경험한 집단이 부정 감정을 경험한 집단보다 더 큰 행복을 보고하여( $t(28)=2.29, p<.025$ ), 감정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식조건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경고조건에서는 부정 감정을 경험한 집단이 오히려 정적 감정을 경험한 집단보다 큰 행복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t(28)=1.69, p=.10$ ). Schwarz와 Strack(1991)의 판단모델(그림 1)에 따르면 인식조건과 경고조건은 모두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체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전반적인 행복판단을 해야 하므로 두 조건의 참가자들에게서 동일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실험 1의 결과는 이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무인식조건에서는 감정효과, 경고조건에서는 과수정현상, 그리고 인식조건에서는 정적, 부정 감정집단간에 차이가 없음(감정효과가 사라짐)을 보이는 것이었다. 본 연구자들은 세 가지 가능한 결과 중 인식조건에서도 무인식조건과 마찬가지로 감정효과가 나타나는 결과 패턴의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였으나 이 결과는 그 예상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Schwarz와 Clore(1983)의 결과에서는 약한 인식(간접 점화)조건과 강한 인식(직접 점화)조건 모두 평균값에 있어서 정적 감정 조건이 부정 감정 조건보다 더 큰(행복한) 값이었으나, 표 1의 인식조건의 결과는 오히려 부정 감정 조건의 평균치가 정적 감정 조건보다 더 컸다. 인식조건의 참가자들도, 경고조건만큼 적극적인 아니지만, 판단수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1은 부정 감정의 인식 및 경고조건 참가자들의 판단수정 정도의 경향성이 정적 감정 집단보다 더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적 감정의 세 조건의 평균은 9.33부터 10.13으로서 비슷하였으나, 부정 감정의 세 조건 사이에는 무인식조건(8.47)에 비하여 인식조건(9.87) 및 경고조건(10.77) 각기  $t(28)=1.61, p<.10$ (일방 검증), 및  $t(28)=2.56, p<.01$ (일방 검증)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적 감정보다 부정 감정시 인식, 경고조건에서의 판단 수정의 경향성이 더 크다는 이 결과는 Schwarz와 Clore(1983)의 결과와 상통하는 것

표 1. 전반적인 행복지표의 평균 (표준편차)

	무인식조건	인식조건	경고조건
정적감정	10.13 (1.67)	9.33 (2.60)	9.33 (1.88)
부정감정	8.47 (2.26)	9.87 (2.06)	10.77 (2.69)

주. 15점 척도에서의 평균치. 수치가 클수록 만족

표 2. 주거만족 평정치의 평균 (표준편차)

	무인식조건	인식조건	경고조건
정적감정	9.67 (4.13)	9.27 (3.37)	8.67 (3.64)
부적감정	9.47 (2.56)	10.80 (2.18)	10.27 (3.65)

주. 15점 척도에서의 평균치. 수치가 클수록 만족

이다. 정적 감정보다 부적 감정을 체험할 때 판단에 보다 신중해짐을 의미하는 결과로 보인다. 특히, 부적 감정 경고조건의 평균치(10.77)는 정적 감정의 효과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정적 감정 무인식조건(10.13)보다 더 커서, 과수정의 뚜렷한 증거로 볼 수 있을 듯하다.<sup>6)</sup>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만족 구체적인 영역 중 주거에 대한 만족평정의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감정조작(정적, 부적 감정)의 주효과 및 인식조작(인식, 무인식, 및 경고조건)의 주효과, 그리고 감정과 인식조작의 상호작용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Schwarz 등(1987)에서 보이던 무인식조건의 대비효

6) 심사과정 중 한 평자는 이 실험의 부적 감정 조작이 정적 감정 조작보다 더 효과적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재미있는 지적을 하였다. 그런데, 감정효과 조작확인 결과에 의하면, 1부터 15까지의 15점 척도에서 부적 감정 조건은 평균 6.5, 정적 감정 조건은 평균 11.3으로서 중성 감정을 나타내는 가운데 척도치 8로부터의 차이가 정적 감정 조건에서 더 컸다. 또한 사후 면접시의 보고 자료에서도 실험실에서의 감정이 정적이었는지 부적이었는지의 응답 비율이 정적 감정 조건에서는 69 대 22, 부적 감정 조건에서는 29 대 53이었다. 이 수치들은, 적어도 방향 면에서, 정적 감정의 유발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를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이는 데는 주의가 요구된다. 실험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실험과 관련하여 부적 감정(혹은 태도)을 보고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아버지 이외의 몇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졌을 것 같은가?” 라고 묻는 식의, 참으로 강력한 분노 유발 조작에서조차도(Schachter & Singer, 1962) 실험참가자들이 “angry” 척도에 별로 높게 평정하지 않아 연구자들이 “불운하게도(unfortunately)” 라는 표현을 논문에 써야 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느 연구자가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논문을 쓰고 싶겠는가?) 아무튼, 이 실험 1의 두 감정 조작 중, 어느 한 쪽 감정의 조작이 더 효과적이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표 3. 용돈에 대한 만족평정치의 평균 (표준편차)

	무인식조건	인식조건	경고조건
정적감정	11.53 (3.20)	11.20 (2.51)	9.67 (2.61)
부적감정	10.27 (3.06)	9.93 (3.08)	10.40 (3.64)

주. 15점 척도에서의 평균치. 수치가 클수록 만족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방 분위기로 감정유발을 하였으므로, 주거에 대한 판단은 맥락효과로서 대비효과가 가능하다. 무인식조건의 결과는 아마도 감정효과가 대비효과와 상쇄되어 약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있는 방과 나의 방의 비교에 의한 대비효과”라는 발상은 비정서적(인지적) 맥락효과로 볼 수 있을 터인데, Johnson과 Tversky(1983)의 연구 결과에 서처럼 감정의 영향이 보다 포괄적(diffuse)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diffuse) 감정 효과는 Johnson과 Tversky(1983)에 의하여 상당히 설득력있게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현상이 가능한 기제를 LeDoux의 최근 이론이 암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논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표 2의 평균치 패턴은 정적, 부적 감정 상태에서 모두 인식조건 및 경계조건의 판단수정 경향성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부적 감정 인식조건의 주거만족 평정치 평균(10.80)은 부적 감정 무인식조건(9.47)보다, 그리고 정적 감정 인식조건(9.27)보다  $p < .10$  수준(일방검증)의 차이를 보였다[각기  $t(28)=1.53$ ,  $t(28)=1.48$ ].

용돈에 대한 만족(표 3)의 2원 변량분석결과 역시 두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무인식조건의 감정효과는 주거 만족에서보다는 경향성이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런데, 표 3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적 감정의 세 조건들의 평균치는 각기 9.93부터 10.40으로 비슷한 반면, 정적 감정의 세 조건 중에서 경고조건(평균 9.67)의 판단수정 경향성이 두드러져, 무인식조건(11.53) 및 인식조건(11.20)보다 용돈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았다[각기  $t(28)=1.75$ ,  $p < .05$ (일방검증);  $t(28)=1.64$ ,  $p < .10$ (일방검증)].

실험 1의 세 종속변인 결과의 경향성을 무인식, 인

식, 경고조건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무인식조건에서의 감정효과는 전반적 행복에 있어서는 아주 뚜렷하고, 용돈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는 약하며, 주거만족에 있어서는 더욱 약하였다. 용돈에 대한 만족에서 감정효과가 약한 것은 이 주제가 전반적 행복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인 주제보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주제에 대한 판단에서 감정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Schwarz와 Strack(1991)의 모델 뿐 아니라, 모든 이론가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다(Bower, 1991; Clore & Pratt, 1991; Clore, Schwarz, & Conway, 1994; Fiedler, 1988, 1991).

(2) 감정의 영향에 관한 경고 없이 감정의 원인인 식만으로는 판단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지지되지 않았다. 감정의 원인 인식은 단순히 감정효과를 사라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판단수정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행복감과 주거만족의 경우).

(3) 감정에 영향받지 않도록 경고하는 경우에는 세 종속측정치 모두에서 판단수정 현상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판단수정은 부정 감정뿐만 아니라 정적 감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용돈 만족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무인식조건에서는 감정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인식조건과/혹은 경고조건에서 그 효과를 수정하려는 현상이 보인다는 사실은 모순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아주 재미있는 발견일 수 있다. 실제로는 크게 편파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닌데도, 감정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세상지식 혹은 메타판단이 판단자로 하여금 있을 가능성이 있는 편파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야기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본 실험의 무인식조건에서 구체적 사항의 판단시 감정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Isen 등(1978)의 결과, 즉 선물 받은 후 구체적 사항의 판단에 감정효과가 나타난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실험실연구와 현장연구의 차이 그리고 감정의 강도 차이로 설명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실험실에서 대부분

의 참가자들은 어떤 연구의 중요한 연구자료로 사용될 무엇인가를 위해 자신이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에 몰두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주어진 나중 과제에 몰두하면 할수록 그 이전에 조작한 감정의 효과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감정의 강도가 강하다면 나중 과제에의 몰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남을 수 있겠지만 감정의 강도가 약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추후질문지와 사후면접 실제 참가자가 어떤 판단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반적인 행복판단을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추후질문지」의 응답 내용은 자료로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무인식조건의 참가자 중 77%, 인식조건의 참가자 중 67%, 경고조건의 참가자 중 81%가 “몇 가지 일을 생각해보고 답하였다”고 보고하였다.<sup>7)</sup> Schwarz와 Clore(1983)에 따르면, 무인식조건은 행복판단시 자신의 삶에 관하여 생각해 보지 않고, 당시의 감정을 자신의 삶에 관하여 생각한 결과 초래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인데, 세 조건 참가자들이 모두 자신의 삶에 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하여 보았다는 것은, Schwarz와 Clore(1983)의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판단과정에 대한 정확한 내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Nisbett & Wilson, 1977)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실 험 2

실험 1의 결과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단지 감정의 원인을 인식시키기만 한 인식조건에서도 판단수정의 현상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자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는 격한 감정에 빠져 있을 때, 나중에 생각하면

7) 이 실험의 추후질문지에서는 또한 판단시에 떠올랐던 사건을 적도록 요구하였었는데, 보고된 사건의 구체성과 포괄적인 정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아주 심하여 사건의 종류 및 그 수는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했다.

어리석을 정도로, 비이성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 1의 결과가 방의 분위기라는 아주 약한 감정상태이어서 그 영향을 떨쳐버리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험 2의 참가자들은 선물을 받거나 무시당함으로써 강한 감정이 유발되도록 하였다.

실험 2는 강한 감정을 취급하는 관계로 무인식조건은 설정될 수 없었다. (원인을 모르면서 강한 감정을 체험하게 되는 경우는 불안신경증 상태를 제외하고는 상상하기 곤란할 것이다.) 감정의 원인을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한 인식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 조건으로서 분명하게 감정의 원인을 인식시킨 '강한 인식조건'을 넣어 2(정적 감정, 부적 감정)×2(약한 인식, 강한 인식) 요인설계가 사용되었다.

실험 2에서 있을 수 있는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1)실험 1에서 인식조건(단순히 감정의 원인만을 알려주고 감정의 영향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판단수정 경향성을 보인 것이 실험 1에서 유도된 감정의 강도가 약한 때문이었다면, 강한 감정을 유발한 실험 2에서는 감정효과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즉 정적 감정조건에서의 판단이 부적 감정조건에서의 판단보다 더 정적인 방향인 감정조건간 차이의 주효과가 예상된다. (2)약한 인식조건에서는 감정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강한 인식조건에서는 판단수정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예상된다. (3)실험 1의 결과가 감정의 강도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면, 즉 감정의 인식만으로 판단수정이 가능한 것이라면, 정적 감정조건에서의 판단이 부적 감정조건에서의 판단보다 더 부적인 방향인 감정조건간 차이의 주효과가 예상된다.

## 방 법

참가자 '심리학 개론' 과목을 수강하는 인제대학교 여학생 62명이 가산점을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감정단어 유사성 평정」과 「대학생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설문지」 응답이라는 두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예고를 받고 실험실로 왔

다. 실험협조자 한 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까지의 참가자가 집단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매 시행에서 약 절반의 참가자들은 선물을 받게 되는 정적 감정집단에, 나머지는 선물을 못 받는 부적 감정집단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자와 실험협조자가 선물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별도의 원인언급이 없는 조건은 약한 인식조건, 다시 한번 감정의 원인을 언급한 조건은 강한 인식조건으로 명명하였다. 각 조건별로 할당된 참가자 수는 약한 인식조작을 한 정적 감정조건 16명, 부적 감정조건 19명, 그리고 강한 인식조작을 한 정적 감정조건 13명, 부적 감정조건 14명이었다.

절차 강의실용 의자가 3개씩 3줄로 배치되어 있는 실험실에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실험자는 명단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다(실험 1의 설명과 동일). 설문지의 하단부분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알아보기 힘든 「감정단어 유사성 평정지」를 나누어주고 다음의 말을 덧붙였다.

“인쇄상의 잘못으로 글자를 잘 알아보기 힘든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사집 아저씨의 실수로 잘못 복사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설문지의 보이는 부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설문지가 끝나면 실험자는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회수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조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였다.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설문지는 전반적인 대학생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인쇄상태가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것보다도 더 좋지 않아서 새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집 아저씨가 복사를 마치는 대로 여기로 가져다주기로 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참가자들이 다음 설문지를 기다리는 동안 감정조작을 실시하였다.

감정조작 과제 없이 기다리는 동안 학생 속에 앉아 있던 실험협조자가 지나다니던 실험자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기념품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도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실험

자의 승낙이 있는 후, 실험협조자는 먼저 실험자에게 선물을 준다. 다른 참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실험자는 선물로 받은 도서상품권을 봉투에서 꺼내 보면서 “정말 선물로 주는 거예요?” 라고 물으며 좋아한다. 실험협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참가자들을 돌아보며 “학원서점 개업 20주년과 책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 도서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실험실을 한 바퀴 돌며 약 절반의 참가자에게 도서상품권을 나눠주었다. 실험협조자는 학생들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몇 사람에게만 선물을 줌으로써, 마치 사람을 고르는 듯한 인상을 주도록 하였다.

실험자는 선물을 나눠주고 앉으려는 실험협조자에게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다 주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한다. 실험협조자는 “좋은 책을 볼만한 사람에게만 나눠주려고 했거든요” 라고 답한다. 이때 실험자가 아무 말이 없으면 약한 인식조건이 된다. 이때 실험자가 “받은 사람은 기분 좋지만,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기분 나쁘겠는데요”라고 말한 경우는 강한 인식조건이 된다.

실험자가 창가로 가서 창을 닫고 돌아서면, 그 신호를 기다리던 보조자가 들어와 복사한 설문지를 전달하고 나간다. 실험자는 설문지를 살펴본 다음 “지금 자신의 현 상태를 솔직하게 나타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설문지를 나눠준다. 설문지는 실험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대학생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설문지」에 감정조작의 효과를 확인하는 문항을 삽입한 것이다. 3가지 정적 감정단어(즐겁다, 호뭇하다, 기분좋다)와 3가지 부정 감정단어(아쉽다, 화난다, 불쾌하다)에 대하여 각각 자신의 상태를 적절히 기술하는 정도에 따라 11점 척도상(0점은 전혀 유사하지 않다, 10점은 매우 유사하다)에 평정하게 하였다. 이 조작확인 질문은 행복 및 만족 평정 후에 주어졌다. 정적 감정단어 점수의 합에서 부정 감정단어 점수의 합을 뺀 것을 감정의 지표로 삼았다.

이어서 실험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추후질문지」와 실험 1에서 실험자가 ‘사후면접’시 구두로 물었던 것들을 질문지로 만든 「설문조사를 마치면서」를

실시하였다.

설문지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실험실에 와서 실험자가 하였던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게 하는 「기억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참가자들이 실험상황을 어떻게 지각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검사지 뒷면에 실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적게 하였다. 그 후 실험협조자를 나가게 하고 전체 실험에 대한 사후 설명을 하였다. 실험의 목적과 감정유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부정 감정조건의 참가자들에게 특별히 양해를 구하였다. 그리고는 나눠준 선물을 회수하고, 실험 일정이 완전히 끝난 후 참가자 전원에게 여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빗)을 선물로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하고(물론 이 약속을 나중에 이행했음), 마지막으로 실험과정에 대해 비밀을 지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sup>8)</sup>

## 결과 및 논의

실험조작효과 확인 기억력 검사와 실험목적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을 살펴본 결과, 실험의 목적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도서상품권을 나눠준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적 감정단어 평정치의 합에서 부정 감정단어 평정치의 합을 뺀 차이값을 감정의 지표로 사용한 결과, 선물을 줌으로써 정적 감정을 유도한 집단의 평균은 8.02(표준편차 3.66; 강한 인식 조건 평균 7.19, 표준편차 3.77; 약한 인식 조건 평균 8.69, 표준편차 3.55)인 데 반해, 선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부정 감정을 유

8) 감정 조작을 위하여 “좋은 책을 볼만한 사람에게만 나눠주려고 했거든요” 라고 언급한 것이 부정 감정 조건 참가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모멸적인 것이어서 연구 윤리상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모르겠다. 예비실험에서 그 언급이 없는 경우 정적, 부정 감정 조건간에 감정 평정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얻을 수 없어, 그 언급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언급이 포함된 경우, 부정 감정 조건 참가자들은 얼굴 표정에서도 언급을 역력히 볼 수 있을 정도이었는데, 사후설명시 정적 감정 조건의 도서상품권을 회수할 때는 특히 부정 감정 조건 참가자들의 감정이 아주 정적으로 되돌아옴을 표정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정적 조건 참가자들이 도서상품권의 반납에 크게 섭섭해 한 것은 아니었다. 두 조건 참가자 모두 웃으며 실험실을 나갈 수 있었다.

표 4. 전반적인 행복지표의 평균 (표준편차)

	약한인식조건	강한인식조건	계
정적감정	9.16 (2.50)	9.08 (3.07)	9.12
부적감정	9.58 (1.94)	9.21 (2.62)	9.42

주. 15점 척도에서의 평균치. 수치가 클수록 만족

도한 집단의 평균은 3.59(표준편차 6.15; 강한 인식 조건 평균 2.96, 표준편차 6.83; 약한 인식 조건 평균 4.05, 표준편차 5.73)이었다. 이원 변량분석 결과 감정 조작의 주효과만이  $F(1, 58)=11.10, p<.002$ 로 유의하였으며, 인식조작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모두  $F<1$ ). 이로써, 선물을 받았던 집단은 긍정적인 감정을, 선물을 못 받았던 집단은 부적감정을 경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9)</sup>

전반적인 행복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평정치와 '행복' 평정치를 평균하여 전반적인 행복(general well-being) 지표로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행복지표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감정(정적, 부적 감정)차이에 따른 주효과 및 인식조작(약한 인식, 강한 인식)의 주효과, 그리고 두 요인의 상호작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적, 부적 감정 모두에서, 그리고 감정의 원인을 강하게 인식시켰던 아니건, 감정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만족 주거에 대한 만족평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감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1, 58)=4.08, p<.05$ ), 감정 원인인식 정도의 두 조건간의 차이 역시 유의하였다( $F(1, 58)=4.15, p<.05$ ).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감정의 주효과는 감정효과와 역방향의 결과, 즉 부적 감정 조건이 정적 감정 조건보다 더 정적인 판단을 한, 따라서 판단수정 현상을 보인 것 때문이었다. 이 결과

9) 집단간 변량의 차이가 큰 편이어서 비모수치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이었다. 즉 정적 감정 집단의 중앙값은 17.00인 데 반해, 부적 감정 집단의 중앙값은 9.25로서, Mann-Whitney U검증 결과 감정조작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z=-2.44, p<.02$ ). 인식조작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주거에 대한 만족평정치의 평균 (표준편차)

	약한인식조건	강한인식조건	계
정적감정	9.38 (4.08)	8.08 (3.35)	8.79
부적감정	11.89 (3.35)	9.36 (3.86)	10.82

주. 15점 척도에서의 평균치. 수치가 클수록 만족

표 6. 용돈에 대한 만족평정치의 평균 (표준편차)

	약한인식조건	강한인식조건	계
정적감정	10.56 (3.10)	8.85 (3.60)	9.79
부적감정	11.53 (2.12)	10.07 (4.18)	10.91

주. 15점 척도에서의 평균치. 수치가 클수록 만족

는 실험 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 영역에서 감정의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던 Schwarz의 모델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이었다. 요컨대, 판단수정은 단지 감정의 원인 인식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식의 강도가 강하다고 하여 항상 판단수정이 더 적극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부적 감정에서는 역의 방향).

용돈에 대한 만족 평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이원 변량분석한 결과, 인식조작 주효과의 경향성만이 보였으며( $F(1, 58)=3.64, p<.07$ ), 감정 조작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감정 조건간의 차이에 관한 결과의 양상은 주거만족 평정치의 결과와 아주 유사하였다. 즉, 부적 감정조건의 참가자가 정적 감정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더 만족스러워 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 결과 양상은, 표 4의 '전반적 행복'에 있어서도, 그 정도가 아주 미약한 것이긴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세 종속측정치의 결과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성은 강한 감정상태에서도(감정의 영향에 대한 노골적인 경고 없이) 감정의 원인인식만으로도 판단수정 현상이 가능함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추후질문지', '설문조사를 마치면서'의 분석 전반적인 행복에 대한 판단과정을 묻는 「추후질문지」에서 약한 인식조건의 참가자 중 63%, 강한 인식조건의 참가자 중 76%가 "몇 가지 일을 생각해보고 답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설문조사를 마치면서」에서 “설문지에 답할 때 일시적인 감정상태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였는지”를 물었던 문항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약한 인식조건의 경우 80%, 강한 인식조건의 경우 67%의 참가자들이 감정의 영향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 실험의 참가자들 중 74%(62명 중 46명)가 “감정 상태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실은 본 실험에서처럼 강한 정서를 체험하는 경우, 자신의 감정의 원인은 물론, 그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각도 생김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실험 2에서의 두 인식조건은 실질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여러 측정치에서 두 인식조건에서의 두 감정조건간 차이의 결과 양상이 비슷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강한 인식조건의 판단이 약한 인식조건보다 일관성 있게 부정적인 방향을 보인 데 관하여는 잠시 뒤에 논의할 것이다.)

판단과제에 답할 때 어떻게 하였는지를 물었던 문항의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있을 수 있는 감정의 영향만큼을 빼고 답하였다”는 선택지를 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부정 감정 조건에서 “그 기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는 선택지를 답한 사람이 둘 있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평소에 생각하였던 것을...”,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서...” 라고 하였을 따름이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참가자들에게 판단수정의 과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노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지에 대한 가장 예언력 있는 변인은 그 물건의 위치(눈에 잘 띄거나 손을 뻗어 잡어 볼 수 있는)이지만, 물건을 고른 당사자들은 한결 같이 그 물건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는 사실(Nisbett & Wilson, 1977)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제에 대한 정확한 내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험 2에서 정적/부적 감정은 선물 받음/못 받음 이외에도 “좋은 책을 불만한 사람”이라는 언급, 즉 모종의 칭찬/모욕을 가함으로써 조작되었다. 순수한 정적/부적 감정의 조작으로서 칭찬/모욕은 사실상 썩 좋은

방안으로 보기는 힘들다. ‘감정 - 이타행동’ 연구에서 초기에 정적/부적 감정 조작방법으로 성공/실패 피드백이 사용된 바 있었으나, 그것이 적절한 정적/부적 감정 조작이 되지 못함이 지적되 그 후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안신호, 1983, 1986 개관 참조). 그런데, 본 실험에서는 선물 받음/못 받음만으로는 (특히 부적) 감정 조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칭찬/모욕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주 8 참조). 이타행동이 종속변인이었을 때, 특히 아동들은 성공 피드백시(정적 감정 유발 조건) 실험 참여로 받은 것을 자신이 성공하여 받은 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여겨 딱한 타인에게 주려 하지 않는다는가, 실패한 아동은 체면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인을 돕는 행동을 보이려 한다든가 하는 것이 문제이었는데, 본 실험의 종속변인에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종류의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정적 감정 조건의 참가자들이 선물 못 받은 동료들에게 미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미안감은 강한 인식조건 참가자들에서 더 강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적 감정은 약한 인식조건보다 강한 인식조건에서 더 강하게 유발된 반면, 정적 감정은 강한 인식조건 참가자들에서 더 약하게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감정조작 확인에서부터 세 가지 종속변인 모두에 걸쳐 강한 인식조건이 약한 인식조건보다 더 부정적인 방향의 반응을 일관성있게 보인 것은 이 추론에서 예상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주거와 용돈 만족의 측정치에서는 두 인식조건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 종합 논의

실험참가자들이 감정의 원인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방의 분위기로써 감정을 유도한 실험 1에서, 감정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전반적 삶의 만족과 행복감의 판단에 있어서는 뚜렷한 감정효과가 나타났고, 주거와 용돈의 만족에 있어서는 약한 감정효과를 볼 수 있었다. 감정의 원인을



인식시킨 조건에서는 감정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어떤 종속측정치(주거 만족)에서는 뚜렷한 판단수정 현상이 나타났다. 감정의 원인을 인식하고 나아가서 감정의 영향에 대한 경고를 받은 조건에서는 세 측정치 모두에서 상당히 뚜렷한 판단수정 현상이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선물과 칭찬 듣는 것(정적 감정), 혹은 선물을 못하고 모욕적 언급을 듣는 것(부적 감정)으로 감정을 유도한 실험 2에서는, 당시의 감정과 그 원인에 관하여 실험자가 언급을 하였건(강한 인식 조건), 하지 않았건(약한 인식 조건), 세 종속측정치 모두에 있어서 판단수정의 경향성을 볼 수 있었다.

감정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반적 삶의 만족처럼, 많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 애매하고 포괄적인 판단과제에서만 감정효과가 나타나고, 감정의 원인을 인식하거나 판단할 과제가 구체적인 것인 경우에는 감정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Schwarz와 Strack(1991)의 판단모형(그림 1)은, 감정효과 여부만을 고려한다면, 실험 1, 2의 결과와 완전히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의 결과 패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지 감정효과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정효과와 정반대 현상, 즉 정적 감정 때가 부적 감정 때보다 더 부적적인 방향으로 판단하는 판단수정 현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감정 - 판단 관계에는 Schwarz, Clore, 및 Strack(Clore & Parrott, 1991; Clore, Schwarz, & Conway, 1994; Schwarz, 1990; Schwarz, & Bless, 1991; Schwarz & Clore, 1983, 1988; Schwarz & Strack, 1991; Strack, Schwarz, & Gshneidinger, 1985)이 주장하는 귀인이론적 정서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Berkowitz와 Troccoli(1990; Berkowitz, Jo, Troccoli, & Monteith, 1994), Forgas(1995), 그리고 Wilson과 Brekke(1994)가 주장하는 판단수정 현상으로써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Schwarz와 Clore는 정서를 구체적 정서(specific emotion)와 기분(mood)으로 구분하고 그들의 이른바 정보로서의 기분(mood as information: MAI) 이론은

'기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Clore, Schwarz, & Conway, 1994). 그들에게 있어서, '기분'은 정서를 야기할 만큼 강하지 않은 일련의 정적 혹은 부적 사건들이 모여 초래한 전반적인(global) 정적 혹은 부적 감정상태를 의미한다(Schwarz & Bless, 1991). MAI 이론에 의하면, 이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감정 상태'에 처하여 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감정효과라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판단자는 감정효과가 개입된 그 판단을 그 판단대상에 대한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알 것이라는 MAI 이론이 옳다면, 판단자는 감정효과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Schwarz, Clore, 및 Strack의 이 주장이 옳다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감정효과를 인식하는 경우는 없고 단지 타인들의 판단과정을 관찰한 체험에 의하여 감정효과와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몇 가지가 의심스럽게 된다. (1)모든 타인들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2)타인들에서 감정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의 공통성을 인식하게 될 것인데, 자신만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정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3)자기 스스로에게는 감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판단수정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MAI 이론은 기본과 구체적 정서(specific emotion)의 정의에 있어서도 명쾌하지가 않다. 기분(mood)은 affect, emotion, feeling, 등 정서/감정을 표현하는 용어와 혼용되지만, mood를, 특히 emotion과, 구별하여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강도 면에서 약함, 오래 지속됨'이 강조되는 것이 정서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정의 내림이다(Carlson & Hatfield, 1992; Wessman & Ricks, 1966). 중요한 일에 실패하여 장기간 침체된 감정 상태일 때, 이에 적절한 표현이 'mood'일 것이다. 그런데, MAI 이론에서는 '원인의 애매함'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일이 누적되어 생긴 기분도 있으며 원인을 식별할 수 없는 장기간의 감정 상태가 존재할 것이므로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보다 중대한 문제는 MAI 이론에서 이 기분의 정의가

아전인수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제안자들은 호린/개인 날씨에 의한 감정 상태, 그리고 모종의 항우울제 복용시의 감정상태를 기본의 전형적 예로 언급하고 있다(Clore, Schwarz, & Conway, 1994; Schwarz & Clore, 1996). 아마도 본 연구의 실험 1에서의 방 분위기와 아울러, 날씨와 약물 복용은 이 이론에서 정의하는 '기분'에 어느 정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실험조작에서는 '원인이 애매한 감정'이 야기될 것인지 확신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그런데, 연합망 이론에 대한 좋은 반증 연구인, 앞에서 소개한, Johnson과 Tversky(1983)에서의 죽어가는 (혹은 불운한) 젊은이에 관한 기사 읽기는 '기분'의 조작으로, 그러나 비슷한 방식으로 슬픔을 야기한, 그런데 결과가 슬픔과 분노 감정간의 귀인 패턴 차이인 연구(Keltner, Ellsworth, & Edwards, 1993)는 '구체적 정서'의 연구로 인용된다(Clore, Schwarz, & Conway, 1994; Schwarz & Clore, 1996). 그들은 구체적 정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원인이 자각 안 될 시점에서는 기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Clore, Schwarz, & Conway, 1994; Schwarz & Clore, 1996) 감정에 관한 어떤 연구도 그들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편리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이 이론의 약점 중 하나는 다른 학자들이 보기에 감정의 원인이 분명히 인식될 감정조작(예컨대 Velten 기법)에서도 감정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Bower, 1991; Forgas, 1991a, 1991b, 1991c)에 대하여 깨끗한 설명을 못하는 것이다.

Schwarz와 Clore(1983)의 주장은 정서의 귀인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들은 판단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을 오귀인(misattribution)이라 불렀다. 일반적으로 정서의 귀인이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데 있을 것이다. 약물로서 억지로 신체적 흥분을 야기한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의 종류가 당시의 외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Schachter & Singer, 1962). 그러나, 그 경우에도 외적 상황이 어떤 정서를 일으키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정서의 종류가 결정될 수 없을 것

이다. 따라서 정서의 귀인이론은 인류에게 특정 상황과 특정 정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상황-정서 관계는, Schachter(1964)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습을 통하여 습득되는 일종의 '지식'인 것일까? 아닐 것이다. 얼굴 표정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얼굴표정 정서이론가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얼굴 표정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대표하는 신뢰성 있는 지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인간 아동들의 선천적 얼굴표정에 미루어 상황-감정의 관계는 '흥분 후의 감정 종류 탐색'이라는 귀인과정 없이 자동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MAI 이론가들도 이 점은 인정하는 것 같다. 그들의 실험 중에는 얼굴 표정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전체를 내포한 실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Schwarz & Clore, 1996)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체험적 접근"이라고 부르면서, 귀인이론과 거리를 두려 하는 듯 보인다.

감정효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다음 네 가지이다(Bower, 1991): (1)MAI 이론에서의 오귀인, (2)Tversky와 Kahneman의 anchoring heuristic, (3)어떤 기억 내용이 인출되는가에 초점을 둔 연합망 이론, 그리고 (4)인출되는 기억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억 혹은 눈 앞의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예컨대, 술 반병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가)가 감정에 따라 결정됨. 위 네 가지 중 네 번째인 '해석'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일상 체험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위의 네 설명 중 어떤 것이 옳은지를 결정짓는 것이 못 된다. 이것이 앞으로의 숙제일 것이다(Bower, 1991).

Bower(1991)는 자신의 이전 모형(Bower, 1981)을 수정하여 "전반적 정적(부적) 감정[general positive (negative) affect]" 노드를 연합망 속에 포함시켰다. 이 노드는 판단 대상에 속한 "정적(부적) 방향[positive (negative) valence]" 노드의 활성화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 모형은 Johnson과 Tversky(1983)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위 네 가지 설명 중 '해석' 이론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10)</sup>

감정효과의 '해석' 이론은 LeDoux(1989)의 생리적 정서이론에서 그 기초를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James(1884)의 정서이론에 대한 Cannon(1927)의 반대 주장에는 정서 상황에서의 신체적 변화는 James의 이론을 지지하기에는 그 속도와 각 정서에 상응하는 정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Schachter는 Cannon의 이 반론에 근거하여, 신체적 흥분은 정서 발생의 계기일 뿐이며, 정서의 종류는 상황 해석에 달려 있다는 이론을 내놓았다(Schachter & Singer, 1962). 그런데 정서상황에서 신체적 흥분이 있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해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LeDoux는 상황에 대한 이 "원시적 해석"을 편도체에서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James가 정서이론을 발표한 시기의 신경해부학은 대뇌 감각 운동 영역의 발견 단계이었으나, Cannon의 시대에 와서 시상하부의 역할이 밝혀지고 시상하부가 정서중추라는 주장이 대두되게 되었다(Bard & Rioch, 1937; Hess & Bruegger, 1943; Papez, 1937). 정서중추로서 그 후 변연계가 주목을 받아왔는데, LeDoux는 최근 편도체가 정서 신경망의 핵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편도체가 손상된 쥐들은 스트레스 경험시 위계양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편도체가 손상된 동물에서는 정서조건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쥐(LeDoux, Sakaguchi, & Reis, 1984) 및 인간(Bechara, Tranel, Damasio, Adolphs, Rockland, & Damasio, 1995)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편도체 세포들은 판단 대상의 물리적 모양특징(feature)보다는 그 대상의 정서적 중요성에 더 민감하고, 일부 편도체 신경은 대상이 정적인지 부적인지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Nishijo, Ono, & Nishino, 1988). 이러한 기능들은 Cannon과 Papez가 시상하부의 기능으로 예상하던 것들이다(LeDoux, 1989).

최근의 신경해부학적 발견에 의하면(LeDoux 등, 1994; LeDoux, Ruggiero, & Reis, 1985), 편도체는 피질을 경유한 자극입력 이외에 시상으로부터도 직접

자극입력을 받는다. LeDoux는 이 시상-편도체 투사에 의해 대상에 대한 정서적 중요성, 정서적 방향(valence)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빠른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상정한다. 그리고 그 후 피질-편도체 투사에 의하여 대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LeDoux(1989)의 이 이론은 Zajonc(1980)의 정서 우선성(affective primacy) 가설 및 이 가설을 지지하는 많은 연구들(Niedenthal & Kitayama, 1994 참조)에 대한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된다.

우리는 동일 대상에 대한 편도체 반응이 유기체의 상태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병약한 상태의 동물은 사소한 대상에 대하여도 두려움을 느끼도록 할 '정서적 준비성'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서적 마음갖춤세(emotional set)'의 존재를 가정한다면, 우리는 감정-인지 영향관계에 관하여 Bower(1991)가 제시한 네 가지 설명 가능성 중 '해석' 가설이 타당할 근거를 갖게 되는 셈이다. 부정 감정에 처할 때 우리의 정서적 마음갖춤새는 대상들을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도록, 그리고 정적 감정에 처할 때 우리의 정서적 마음갖춤새는 대상들을 보다 정적으로 해석하도록 조율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상을 평가할 때 당시의 정서적 마음갖춤새에 영향받는다라는 사실을 세상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연후에, 우리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의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됨을 터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두 가지가 추가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첫째, 정서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어린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감정 효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판단수정 현상이 발견되지 않을 것인가? 둘째, 판단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 것일까? 자신을 비이성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표면적 반응 수준에서만 성공할 뿐,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성공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인가? 즉 정서나 욕구에 의한 판단의 편파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판단의 수정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분명한 질문에 응답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정했음"이

10) 연합망 이론의 다른 확장을 Forgas가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Forgas(1992, 1995, 1999) 참조 바람.

라는 '역편과적 반응 편과(counter-bias response bias)'를 초래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보다 미묘하게 그 대상에 대한 편과를 묻는 상황에서는 감정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혹은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리는 중요한 연구과제로 보인다.

편도체 수준에서의 '정서적 마음맞춤새'는 얼마나 예민할 수 있는 것일까? 서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감정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정 현상은 맥락 효과에 대한 수정 현상과, 그 맥락이 정서적 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흔히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평가차원에서 중성적이 아닌 어떤 단어들을 점화 자극으로 사용한 실험의 참가자들의 편도체는 그 점화 자극에 접하는 순간 모종의 '정서적 마음맞춤새'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Petty와 Wegener(1993)의 연구에서 맥락 자극은 하와이, 바하마 등(정적), 혹은 미니 아폴리스, 휴스턴 등(중성적)이었다. 이 실험에서 자연스러운(default) 반응은 대비효과이었다. 즉 정적 자극에 점화된 집단은 중성적 자극에 점화된 집단보다 목표 자극(인디애나폴리스 등)을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맥락에 영향받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조건에서는 수정 현상이 나타났다. 방 분위기로써 감정을 유발한 본 연구의 실험 1에서 자신의 거처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기대되는 것은, Petty와 Wegener(1993; Wegener & Petty, 1997) 연구의 논리에 따르면, 대비효과이다. 즉, 아늑한 방의 무인식조건 참가자들은 더러운 방의 무인식조건보다 자신의 거처에 대하여 불만족을, 그리고 인식, 경고조건의 참가자들은 그 역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실험 1의 결과 양상은 그 반대이었다. 즉, 아늑한 방의 인식, 경고조건 참가자들은 더러운 방의 인식, 경고조건 참가자들보다 자신의 거처를 더 불만족스러워 하였다. 이는 개념적 수준의 맥락효과와 감정 효과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실험 1에서의 결과가 점화 조작에 의한 개념적 수준의 맥락효과와 감정유도 절차에 의한 체험된 감정의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우세

한지를 판가름지을 결정적 증거로 보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실험 1에서의 인식, 경고조건의 조작이 "기본 좋은/나쁜 방," "기본에 좌우되지 말고 판단하라" 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어서, '기본'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적/부적 감정을 유발하고 정적/부적 자극으로 점화하는 절차의 연구를 통하여 보다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실험들로부터 이른바 사회인지 전통의 실험에서의 정적/부적 자극이 단지 개념상의 정적/부적 자극일 뿐이며, 정적/부적 감정과는 다른 기제로 판단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참 고 문 헌

- 권준모 · 이훈구 · 이수정(1998).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동로: 사회정보의 자동적 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 1-36.
- 김기중(1993). 刺戟의 感情價가 情報處理에 미치는 效果. 서울대 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호(1983). 悲哀가 利他行動에 미치는 影響.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호(1986). 이타행동에 관한 일 고찰. (부산대) *사회과학논총*, 5, 235-257.
- 안신호(1996). 사회적 판단과 동기: 동기가 인지적 책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 77-103.
- 안신호 · 이승혜 · 권오식(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 107-123.
- 이수정 · 권준모 · 이훈구(1998). 정서의 자동처리기제. *인지과학회지*, 9, 13-29.
- 이홍철(1993). 정서상태가 기억수행 및 주의편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경(1994). 사회심리학의 최근 동향: 동기와 정서의 복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의 최근 동향* (pp.39-82).
- Arnold, M. B.(1960). *Emotion and personality*, Vol. 1,

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argh, J. A.(1996). Automaticity in social psychology. In E. T. Higgins and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169-183). New York: Guilford Press.
- Bard, P., & Rioch, D. McK.(1937). A study of four cats deprived of neocortex and additional portions of the forebrain. *Bulletin of Johns Hopkins Hospital*, 60, 73-147.
- Bechara, A. D., Tranel, H., Damasio, R., Adolphs, C., Rockland, E., & Damasio, A. R.(1995). Double dissociation of conditioning and declarative knowledge relative to the amygdala and hippocampus in humans. *Science*, 269, 1115-1118.
- Berkowitz, L., Jo, E., Troccoli, B. T., & Monteith, M. (1994). *Attention-activated regulation of feeling effec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Berkowitz, L., & Troccoli, B. T.(1990). Feelings, direction of attention, and expressed evaluations of others. *Cognition and Emotion*, 4, 305-325.
- Bierhoff, H. W.(1988). Affect, cognit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K. Fiedler and J. Forgas (Eds.), *Affect,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New evidence and integrative attempts* (pp. 167-172). Goettingen: C. J. Hogrefe.
- Blaney, P. H.(1986). Affect and mem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9, 229-246.
- Bless, H., Bohner, G., Schwarz, N., & Strack, F. (1990). Mood and persuasion: A cognitive response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331-345.
- Bower, G. H.(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Bower, G. H.(1991). Mood congruity and social judgments. In J. P. Forgas (Ed.), *Emotion and social judgments* (pp. 31-53). New York: Pergamon Press.
- Bower, G. H., & Cohen, P. R.(1982). Emotional influences in memory and thinking: Data and theory. In M. S. Clark and S. T. Fiske (Eds.), *Affect and cognition* (pp. 29-33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annon, W. B.(1927). The James-Lange theory of emotion: A critical examination and an alternative theory.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9, 106-124.
- Carlson, J. G., & Hatfield, E.(1992). *Psychology of emo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Carlson, D. E., & Smith, E. R.(1996). In E. T. Higgins and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184-210). New York: Guilford Press.
- Clark, M. S., & Isen, A. M.(1982). Toward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eling states and social behavior. In A. H. Hastorf and A. M. Isen (Eds.), *Cognitive social psychology* (pp. 73-108). New York: Elsevier North Holland.
- Clore, G. L., & Parrott, W. G.(1991). Moods and their vicissitudes: Thoughts and feelings as information. In J. P. Forgas (Ed.), *Emotion and social judgments* (pp. 107-123). New York: Pergamon Press.
- Clore, G. L., Schwarz, N., & Conway, M.(1994). Affectiv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R. S. Wyer and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1: Basic processes* (2nd ed., pp. 323-418). Hillsdale, NJ: Erlbaum.
- Clore, G. L., Schwarz, N., & Kirsch, J.(1983, May). *Generalized mood effects on evaluative judgmen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 Ellis, H. C., & Ashbrook, P. W.(1988). Resource allo-

- cation model of the effects of depressed mood states on memory. In K. Fiedler and J. Forgas (Eds.), *Affect,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pp. 25-43). Goettingen: C. J. Hogrefe.
- Fiedler, K.(1988). Emotional mood, cognitive style, and behavior regulation. In K. Fiedler and J. Forgas (Eds.), *Affect,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pp. 100-119). Goettingen: C. J. Hogrefe.
- Fiedler, K.(1990). Mood-dependent selectivity in social cognition. In W. Stroebe and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 pp. 1-33). New York: John Wiley & Sons.
- Fiedler, K.(1991). On the task, the measures and the mood in research on affect and social cognition. In J. P. Forgas (Ed.), *Emotion and social judgments* (pp. 83-104). New York: Pergamon Press.
- Fiedler, K., & Forgas, J.(1988). (Eds.). *Affect,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New evidence and integrative attempts*. Goettingen: C. J. Hogrefe.
- Forgas, J. P.(1991). (Ed.). *Emotion and social judgments*. New York: Pergamon Press. (a)
- Forgas, J. P.(1991). Affect and social judgements: An introductory review. In J. P. Forgas (Ed.), *Emotion and social judgments* (pp. 3-29). New York: Pergamon Press. (b)
- Forgas, J. P.(1991). Affect and person perception. In J. P. Forgas (Ed.), *Emotion and social judgments* (pp. 263-290). New York: Pergamon Press. (c)
- Forgas, J. P.(1992). Affect in social judgements and decisions: A multi-process mode.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227-275). New York: Academic Press.
- Forgas, J. P.(1995). Mood and judgement: The affect infusion model (AIM). *Psychological Bulletin*, 117, 39-66.
- Forgas, J. P.(1999). Network theories and beyond. In T. Dalgleish and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pp. 591-611). New York: John Wiley & Sons.
- Gilligan, S. G., & Bower, G. H.(1984). Cognitive consequences of emotional arousal. In C. E. Izard, J. Kagan, and R. B.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 547-588).
- Hasher, L., Ross, K. C., Zacks, R. T., Sanft, H., & Doren, B.(1985). Mood, recall, and selectivity in norm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4, 104-118.
- Hess, W. R., & Bruegger, M.(1943). Subcortical center of the affective defensive reaction. In K. Akert (Ed.), *Biological order and brain organization: Selected works of W. R. Hess* (pp. 183-202). Berlin: Springer-Verlag.
- Higgins, E. T.(1996). Knowledge activation: Accessibility, applicability, and salience. In E. T. Higgins and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133-168). New York: Guilford Press.
- Isen, A. M.(1984). Toward understanding the role of affect in cognition. In R. S. Wyer and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pp. 179-236). Hillsdale, NJ: Erlbaum.
- Isen, A. M.(1999). Positive affect. In T. Dalgleish and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pp. 521-539). New York: John Wiley & Sons.
- Isen, A. M. & Levin, P. F.(1972). The effect of feeling good on helping: Cookies and kin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384-388.
- Isen, A. M., Shalcker, T. E., Clark, M., & Karp, L. (1978). Affect, accessibility of material in memory and behavior: A cognitive loo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2.

- James, W.(1884). What is emotion? *Mind*, 9, 188-205.
- Johnson, E. J., & Tversky, A.(1983). Affect, generalization, and the perception of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20-31.
- Keltner, D., Ellsworth, P., & Edwards, K.(1993). Beyond simple pessimism: Effects of sadness and anger o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40-752.
- Laird, J., Wagener, J., Halal, M., & Szegda, M. (1982). Remembering what you feel: Effects of emotion on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646-657.
- Lazarus, R.(1974). Cognitive and coping processes in emotion. In B. Weiner (Ed.), *Cognitive views of human motivation* (pp. 21-32). New York: Academic Press.
- LeDoux, J. E.(1989). Cognitive-emotional interactions in the brain. *Cognition and emotion*. 3, 267-289.
- LeDoux, J. E., Sakaguchi, A., & Reis, D. J.(1984). Subcortical efferent projections of the medial geniculate nucleus mediate emotional responses conditioned by acoustic stimuli. *Journal of Neuroscience*, 4, 683-698.
- LeDoux, J. E., Ruggiero, D. A., & Reis, D. J.(1985). Projections to the subcortical forebrain from anatomically defined regions of the medial geniculate body in the rat. *Journal of Comparative Neurology*, 242, 182-213.
- Martin, L. L.(1986). Set/reset: Use and disuse of concepts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93-504.
- Martin, L. L., & Arceeb, J. W.(1992). Beyond accessibility: The role of processing objectives in judgment. In L. L. Martin and A. Tesser (Eds.), *The construction of social judgments* (pp. 195-216). Hillsdale, NJ: Erlbaum.
- Miller, D. T., & Ross, M.(1975).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13-225.
- Niedenthal, P. M., & Kitayama, S.(1994). (Eds.). *The heart's eye: Emotional influences in perception and attention*. San Diego: Academic Press.
- Nisbett, R. E., & Wilson, T. D.(1977). Telling more than we can know: Verbal reports on mental processes. *Psychological Review*, 84, 231-259.
- Nishijo, H., Ono, T., & Nishino, H.(1985). Single neuron responses in amygdala of alert monkey during complex sensory stimulation with affective significance. *Journal of Neuroscience*, 8, 3570-3583.
- Ottati, V. C., & Isbell, L. M.(1996). Effects of mood during exposure to target information on subsequently reported judgments: An on-line model of misattribution and corr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39-53.
- Papez, J. W.(1937). A proposed mechanism of emotion.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38, 725-743.
- Petty, R. E., & Wegener, D. T.(1993). Flexible correction processes in social judgment: Correcting for context-induced contras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137-165.
- Rosenhan, D. L., Salovey, P., Karylowski, J., & Hargis, K.(1981). Emotion and altruism. In J. P. Rushton and R. M. Sorrentino (Eds.),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pp. 233-2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chachter, S.(1964). The interaction of cognitive and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 (pp. 49-80). New York: Academic Press.
- Schachter, S., & Singer, J. E.(1962). Cognitive, social, and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Review*, 60, 379-399.
- Schwarz, N.(1990). Feelings as information: Informa-

- tional and motivational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In E. T. Higgins and R. H.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Vol. 2, pp. 527-561). New York: Guilford Press.
- Schwarz, N., & Bless, H.(1991). Happy and mindless, but sad and smart? The impact of affective states on analytic reasoning. In J. P. Forgas (Ed.), *Emotion and social judgments* (pp. 55-71). New York: Pergamon Press.
- Schwarz, N., & Clore, G. L.(1983). Mood, misattribution and judg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13-523.
- Schwarz, N., & Clore, G. L.(1988). How do I feel about it? Informa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In K. Fiedler and J. Forgas (Eds.), *Affect,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New evidence and integrative attempts* (pp. 44-62). Goettingen: C. J. Hogrefe.
- Schwarz, N., & Clore, G. L.(1996). Feelings and phenomenal experience. In E. T. Higgins and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433-465). New York: Guilford Press.
- Schwarz, N., & Scheuring, B.(1988). Judgmen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Inter- and intraindividual comparisons as a function of questionnaire struct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485-496.
- Schwarz, N., & Strack, F.(1991). Evaluating one's life: A judgment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In F. Strack, M. Argyle, and N. Schwarz (Ed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 27-47). New York: Pergamon Press.
- Schwarz, N., Strack, F., Kommer, D., & Wagner, D. (1987). Soccer, rooms, and the quality of your life: Mood effects on judgments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general and with specific domai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69-79.
- Staub, E.(1978). *Positive social behavior and morality (Vol. 1): Social and personal influ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Strack, F., Schwarz, N., & Gschneidinger, E.(1985). Happiness and reminiscing: The role of time perspective, affect, and mode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460-1469.
- Wegener, D. T., & Petty, R. E.(1997). The flexible correction model: The role of naive theories of bias correc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9, pp. 141-208). New York: Academic Press.
- Wegner, D. M. & Bargh, J. A.(1998). Control and automaticity in social life. In Gilbert, D. T., Fiske, S. T., and Lindzey, G. (1998).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1 (pp. 446-496). New York: McGraw-Hill.
- Wessman, A. E., & Ricks, D. F.(1966). *Mood and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Wilson, T. D., & Brekke, N.(1994). Mental contamination and mental correction: Unwanted influences on judgments and evalu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117-142.
- Zajonc, R. B.(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 Zajonc, R. B.(1984). On primacy of affect. In K. R. Scherer and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pp. 259-2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Influences of Affects on Judgments: Mood Effect and Its Correction

Shin-Ho Ahn and Sung-Hye Bin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wo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search for an explanation of mood effect on judgment. Some participants in Experiment 1 were made to feel good or bad for being in a cosy or dirty room. Some of them were made to be aware or unaware of the reason of their feeling; the others were instructed to be careful not to be influenced by their mood in their judgments on their general well-being and concrete issues (satisfaction of their residence and allowance). Mood effect was found in the Unawareness condition; clear correction effect in the Warning condition; tendency for correction effect in the Awareness condition. In Experiment 2, stronger emotions were induced by giving participants a praise and a book coupon(positive emotion) or an insult(negative emotion). Correction effect was found in both Clear and Weak Awareness conditions. These results were found for both concrete and global issues in both experiments. 'Emotional Set' hypothesis was proposed which maintains that an emotional state should form a set(perhaps in amygdala, based on LeDoux' theory) to color the evaluation of a target. Further research on the correction effect was discussed.